

<h1>보도자료</h1>	 사 단 법 인 개성공단 기업협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배포즉시 ('19.6.3)	협회 사무국 T. 02) 778-3270~2 F. 02) 778-3280
제 목 : 미국 방문, “개성공단 설명회” 에 앞서		

- ◇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정기섭)-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이사장 김진형)은 6월 10일부터 미국을 방문, 미 하원 아태소위에서 주관하는 ‘개성공단 설명회’ 에 참석,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 및 재개 필요성을 설명할 예정임
- ◇ 정부가 승인한 개성공단 방문 신청에 대해 북측은 조속히 호응해 주길 바람.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와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미국 연방하원을 방문한다. 6월 11일 미국 연방하원 외교위원회 아시아·태평양 소위원회 브래드 셔먼(Brad Sherman, 민주·캘리포니아) 위원장이 개최하는 ‘개성공단 설명회’ 에 참석하여 개성공단의 가치에 대해 설명한다. 이외에도 미국 내 여러 한반도 전문가와 함께 ‘개성공단의 평화적 가치 인식·공유’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5월 17일 우리 정부에 의해 승인된 개성공단 방북 신청 관련 북측의 승인이 늦어지는데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러냈다.

“개성공단 재개를 설득하기 위해 미국에 직접 가서 설명도 하는데, 이번 방문을 단순 시설점검 목적이라 승인을 안하고 있다면 그것은 오해라 생각한다.”, “재개가 없는 설비점검이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겠는가?”

“현 상황에서 공단 재개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서 재개를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하며, 이번 방문은 공단 재개를 위한 첫걸음으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며, “북측당국도 조속히 방문을 승인해 호응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끝]